

보도시점 2026. 10. 29.(목) 13:00 (2026. 10. 30.(금) 조간)

한국기술교육대, '2026년 일학습병행 OJT Forum &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황

- 현장훈련 우수사례 공유로 산학협력 강화 및 직무역량 향상 모색
- PBL 현장 적용사례 부문 신설...‘작은 취업박람회’ 사전 행사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29일(목) 교내 담헌실학관 담헌홀에서 ‘2026년 일학습병행 OJT Forum &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학습병행 참여 주체들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 인재양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기업,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특성화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다자간 소통의 장을 시작으로 개회식, 우수사례 경진대회, 초청 강연 및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길상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기술교육대는 기업과 근로자, 교육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일학습병행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올해는 특성화고 학생과 학습기업을 직접 잇는 자리까지 마련해, 일학습병행이 재직자 훈련을 넘어 청년의 첫 일자리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존 학습기업,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3개 부문에 올해 새롭게 도입된 PBL(프로젝트 기반 학습) 현장 적용사례 부문을 더해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총 12개 기업이 참가해 교육훈련 운영 성과와 현장 적용사례 등을 포스터와 발표를 통해 공유했다. 1차 사전심사와 2차 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9명, 인기상 1명 등 총 14명이 수상했다.

이어진 초청 강연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26년 일학습병행 우수 사례 경진대회’ 학습근로자 부문 수상자인 하나머티리얼즈(주) 김준영 씨가 일학습병행 참여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청운노동법률사무소 이대홍 노무사가 노동법을 주제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대학과 학습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일학습병행 훈련 품질 제고 방안과 참여 주체 간 협력 강화,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올해는 사전 부대 행사로 ‘일학습병행 작은 취업박람회’가 처음 마련됐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 박람회에는 특성화고 8개교의 취업담당 교사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7개사가 참여해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엄기용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장은 “한국기술교육대는 일학습병행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학습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올해 처음 마련한 작은 취업박람회처럼 기업과 미래 인재를 잇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홍보팀 공동훈련센터	책임자	팀 장	황의택 (041-560-1680)
		담당자	담 당	김지수 (041-560-1681)
		담당자	담 당	조성대 (041-560-8685)